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음 3월 17일) 제17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 5공구에 첨단농업특화단지 세운다

“경제성장 구조 사람 중심으로”

새만금 농업용지에 수출지향형 첨단 농업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중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첨단농업과 6차 산업이 융·복합된 농업모델로 고부가 농식품 수출전진 농업 ZONE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 토지 중 30%에 해당하는 농생명용지는 2013년 5공구 1,513ha의 기반공사를 착공해 현재 75%의 기반공사가 진행중으로 올해 말 농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5공구는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토지가 노출된 곳으로 일부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수준으로 염농도가 낮아져 농지 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작물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공구는 크게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업특화단지, 축산단지, 농산업클러스터단지 등 4개 단지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첨단농업시험단지(170ha)는 2015년 8월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3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조성되면 바로 작물재배 가능

8월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

내일 사업 설명회 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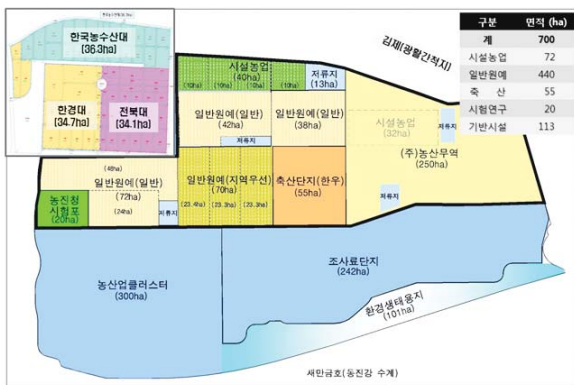
며, 전북대학교가 지난해부터 귀리, 수박, 마늘, 양파 등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농업특화단지에 참여하는 농업법인에게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업특화단지(700ha)는 첨단농업과 6차 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일 민간 사업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올 8월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단지(375ha)는 농식품부가 첨단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조성 목적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중에 있고 기본계획 마련 후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농산업클러스터단지는 농산물 유통, 가공의 중심지, 농식품 서비스산업 등 복합 농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도>



특히, 이번에 사업자를 공모하는 '농업특화단지'는 전국 10여개의 농업용 간척지중 처음으로 '수출지향형 첨단농업단지 조성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법인 참여 확대 및 3개 시군(군산, 김제, 부안) 피해지역의 농업법인에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9년에 실시한 대규모 농업회사 공모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특화단지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단독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2개 이상의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지자체 및 기업이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과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다.

지역우선할당 부지의 사업신청자격은 3개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 농업

법인에 한하며, 지자체 및 일반회사는 3개 지자체 농업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농업특화단지의 사업 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김제 새만금사업단에서 개최된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은 "새만금 농업용지가 4차 산업혁명의 농생명 특화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아시아 농생명리대선 공약사업을 요청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공조해 새만금에 간척지농업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의 많은 우수농업법인이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노출지의 효율적 활용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015년 600ha, 2016년 1,000ha, 2017년 1,300ha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조사료 2만3,000톤을 생산해 35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했다. /안재용 기자

▶ 文, '제이 노믹스'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공개하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끌어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에 시야를 넓혀서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추진, 집권 직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경제부흥 2017'로 명명됐다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겠다"는 이유에서 발표 직전에 수정됐다.

문 후보는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 감점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접속권 확립(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뉴시스

**4·12 전북지역 재보선 결과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전북도, 가축분뇨 저감 휴폐업축사 매입 추진 '성과'

'악취의 늪' 왕궁이 변한다

호남고속도로 전주의 관문인 왕궁지역 악취가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왕궁지역 축산분뇨 해결대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왕궁지역의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이자 오랜 숙원민원인 지역내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 현업 및 휴폐업축사 매입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익산천(주요계)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업 및 휴폐업축사 매입사업은 1,113억원을 투입해 65만㎡를 매입,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1만 7,000㎡(계획량의 80%) 매입,완료했으며, 폐업축사의 경우 이날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130억원을 투입한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주요계 등지에 오랜기

간 동안 퇴적돼 있던 가축분뇨찌꺼기 4만8300톤을 준설하고 습지를 조성하는 등 6여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완공으로 악취와 수질오염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익산천의 새로운 비상이 가대된다.

또한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 시도 합동단속 및 취약시간대 수시단속,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계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이양로시설, 복지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개선사업을 통한 주민소통과 화합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익산천 대표 측정지점의 T-P의 경우 2010년 4.593mg/L에서 2016년 0.358mg/L(92%개선), 올 2월 기준 0.180mg/L(96%개선)로 개선됐고, 복합악취의 경우 측정을 시작한 2012년 31에서 2016년 5(87%개선), 올 1분기에는 4로 92%가 개선됐다. /안재용 기자



12일 정읍시청에서 '민선 6기 3차년도 제5차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다. 전북의 각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한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구' 등 8개 안건을 채택해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도-중앙부처에 건의할 것"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서 현안 논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는 12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민선 6기 3차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전북도내 13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구 등 8개의 안건을 채택해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 이외에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과 전주국제영화제, 제50회 황도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남원시 춘향제 등 전북에서 열리는 다양한 스포츠·문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보 공유와 다양한 홍보를 공동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차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강화 및 새만금사업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를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간 상생협력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벚꽃축제 및 제56회 전라예술회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제6차 정기회의는 6월 김제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래만복~ 부안에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가세요

제54회 The 54th Jeollabukdo Sports Festival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막·축하공연 4월 28일(금) 오후 6시~10시 부안군 스포츠파크 내 특설무대

6시 흥진영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B1A4, 우주소녀 등의 축하 속에 3일간 전북도민체전 일선 돌입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2017.4.28~4.30/3일간

제54회 전라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2017.5.10~5.11/2일간